



초간단 자동차 얼룩 제거 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벌레 자국, 스티커 자국 등 자동차 표면에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얼룩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용해 의외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kids.hyundai.com)가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초간단 '자동차 얼룩 제거 팁' 을 소개했다.

■ 새똥 자국 - 식초



자동차의 새똥 자국은 미관상으로도 지저분해 보이지만 오랫동안 방치하면 차체의 도장을 변색시키거나 부식 등의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제거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마른 휴지로 뽀뽀 닦아내면 안 된다. 새는 먹이를 먹을 때 흙과 모래를 함께 섭취하기 때문에 새의 배설물에는 흙이나 모래가 섞여 있을 수 있다. 이런 새의 배설물을 마른 휴지로 닦아내면 당연히 자동차에는 미세하게나마 흙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새똥 자국을 제거할 땐 식초와 물을 1:1로 섞은 후 극세사 타월에 묻혀서 살살 닦아준다. 그러면 희석된 식초의 약산성 성분이 새똥 자국을 말끔하게 제거해 준다. 단, 이때 힘을 강하게 주어 닦으면 도장면에 흙집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벌레 자국 - 따뜻한 물



운전자라면 교외에서 오랫동안 운전을 한 후, 자동차 여기저기에 지저분하게 벌레 자국이 생긴 것을 발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벌레 자국은 햇볕이 강렬한 곳일수록 더 빨리 말라붙게 되고, 그 상태로 오래 방치해 두면 제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다.

평소 자동차에 벌레 자국을 지울 수 있는 전용 세제를 보관하고 다니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만약, 전용 세제가 없다면 따뜻한 물을 적신 타월을 벌레 자국 위에 올려서 벌레 자국을 불린 후 닦아내면 자동차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 도어 손잡이 흠집 - 치약



도어 손잡이는 자동차의 문을 열고 닫으면서 손이 자주 닿게 되는 부위여서 다른 부위보다 잔흠집도 많이 발생한다.

이같은 잔흠집에는 치약이 효과적이다. 극세사 타월에 치약을 묻혀서 살살 문지르면 흠집이 사라진다. 치약 대신 물파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물파스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자동차의 광택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흠집이 깊게 파여서 도색이 완전히 벗겨졌다면 치약이나 물파스로 제거할 수 없으므로 전문 정비센터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 스티커 자국 - 선크림

자동차 유리창에 붙은 스티커는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 운전에도 지장을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필요 없는 스티커는 제거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것을 이용해 스티커를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 바로 선크



림이다.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스티커의 비닐막을 벗겨낸 후 스티커에 선크림을 바르고 1-2분 후에 떼어내면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 선크림의 오일 성분 때문에 스티커가 쉽게 제거된다.

제거 후에도 스티커 자국이 남아 있다면 다시 선크림을 바르고 5분 정도 후에 닦아내면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아세톤이나 윤활제를 이용해 제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세톤이나 윤활제가 차체에 묻으면 차체가 변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타이어 휠의 녹 - 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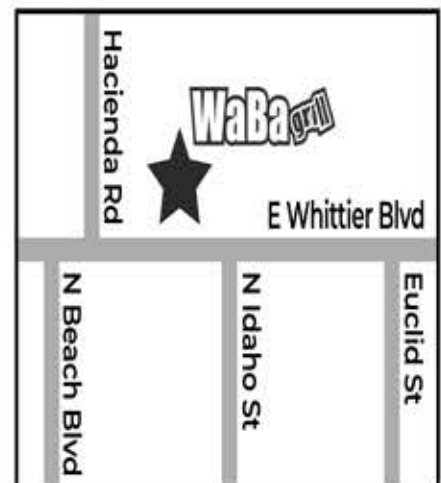
타이어 휠에 녹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때 녹 제거제 등 전용 세제가 없다면 콜라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콜라 속의 탄산이 산소와 반응하여 녹 성분을 분해하고 제거해준다.

타월에 콜라를 부은 뒤 녹이 손 부위를 닦고 10-15분쯤 기다린 후에 마른 수건으로 문질러주면 된다. 녹이 모두 사라졌다면 콜라 성분이 차체에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한 번 더 닦아준다.

사진=shutterstock

WaBa grill

La Habra Eat Smart, Be Healthy!



562.266.0011

<https://order.wabagrill.com/store/5966>

1351 W. Whittier Blvd. La Habra, CA 90631